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이 학 주
울산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별로 총 370명의 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개인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를 예언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의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진로 자기-효능감 요인과 진로 태도 성숙 요인은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63$), 진로 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 중 결정성 차원($r=.57$)과 확신성 차원($r=.61$)이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 성별, 학년별, 그리고 전공별 변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로 태도 총점과 5개 하위 요인 모두에 대해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가 전체의 약 40% 정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확신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Bandura(1982, 1986)의 자기-효능감 이론과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Tracey, 1997). 진로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Brooks, 1990; Cook, 1991;

Spokane & Fretz, 1992). 특히 Lent와 Hackett(1987)는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Bandura(1977)의 초기 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이 특정 과업 수행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Lent & Hacketts, 1987), 특정 행동 수행 혹은 행동 변화를 결정하는 중재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Betz & Luzzo, 1996).

Bandura의 진로 자기-효능감 이론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런 영향력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인지적 능력 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동기 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Betz & Luzzo, 1996).

개인이 특정 진로 영역에 대한 결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중재 변인에 기초를 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 결정 행동은 일차적인 중재 변인인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Bandura, 1989). 진로 탐색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인 직업적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높은 수준의 진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업 탐색 행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Blustein, 1989; Luzzo, 1993). 따라서, 개인의 직업 탐색 과정에서의 발달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성숙 정도와 진로 자기-효능감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성숙은 전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에 대한 준비 정도와 대처 행동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Super, 1957). 이런 진로 성숙 개념은 현실적인 진로 선택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과 직업 세계에 참여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감정, 주관적 반응, 기질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 측면인 진로 태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Crites(1978b)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도 진로 성숙의 구인을 인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직업 선택에 대한 능력 요인과 정의적 측면인 직업 선택에 대한 태도 요인의 두 가지 요소로 제시하였다.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관련된 관심 및 준비 정도에 대한 태도의 성숙 수준은 자신의 결정 및 선택에 대한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효능감 수준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진로 선택에서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 도구로서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y Scale(CDMSES)를 들 수 있다. CDMSES는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업 및 행동 결과의 성공여부의 기대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본적으로 Crites(1971)의 진로 성숙 구인에 기초를 두고 있다. Crites(1965, 1971, 1978b)의 모델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태도와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성숙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내용 중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기학, 1997). 이런 특성은 대학을 졸업하고 구체적인 일의 세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 집단에서도 지속되는 현상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지도 및 상담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다. 청소년기는 학교 장면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

서,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진로 선택을 위한 탐색의 시기이다. 개인이 어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일의 세계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Harré & Lamb, 1983). 따라서, 최초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진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개인의 진로 방향성을 파악하고, 또한 특정 집단의 진로 태도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수록,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에서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은 더욱 커져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직업 선택과 만족스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를 예언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이 어느 정도의 설명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개인의 진로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방 법

1. 조사 대상자

우리 나라 대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이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연세대학교 학생 370명이 임의 표집하여 본 연

구의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248명(67.0%), 여자 122명(33.0%)이며, 이들을 학년별로 보면 1학년 150명(40.4%), 2학년 100명(27.1%), 3학년 68명(18.4%), 그리고 4학년이 52명(14.1%)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95세(표준편차 2.16세)이며, 전공별로는 인문 계열이 180명(48.6%)이고 자연 계열이 190명(51.4%)이다. 모든 참여자는 심리학 교양 수업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들에게 개인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와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인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와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에게 진로 태도 성숙 수준과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 태도 성숙 수준 측정 도구와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진로 태도 측정 도구

조사 대상자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 태도 성숙도 검사(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진로 태도 성숙도 검사는 5개 하위 요인의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성 차원으로서,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둘째, 진

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 정보 수집 능력을 나타내는 준비성 차원이다. 셋째, 독립성 차원이다. 자신의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넷째, 목적성 차원이다. 개인이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 지향성에 대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욕구보다는 자아실현, 사회적 봉사, 대인관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추구하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확신성 차원이다. 이 차원은 진로 선택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차원이다.

진로 태도 성숙도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고등학생 2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가지 하위 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결정성 .88, 목적성 .75, 확신성 .75, 준비성 .76, 독립성 .75이다. 또한, 성별과 계열별에 따른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인문계 남자의 경우에는 .74 - .88의 범위를 보이며, 인문계 여자는 .78 - .90, 실업계 남자는 .65 - .85, 실업계 여자는 .71 - .87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370명을 대상으로 한 5개 하위 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결정성 .90, 목적성 .83, 확신성 .81, 준비성 .77, 그리고 독립성 .80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진로 태도 성숙도 검사의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에 의해 산출되었다(이기학, 한종철, 1997). 한편, 하위 요인들간의 요인 구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 영역

간의 상관 계수는 전체 진로 태도와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은 준비성 .56, 목적성 .60, 확신성 .67, 독립성 .68, 결정성 .81의 수준을 보이며,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은 .17 - .41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를 통한 전체 진로 태도와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은 결정성 .79, 목적성 .53, 확신성 .70, 준비성 .32, 독립성 .61이며,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은 .01 - .54의 범위를 보였다.

2) 진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진로 결정에 대한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를 사용하였다.

CDMSES-SF는 자기평가, 직업 정보, 목표 선택, 미래 계획, 문제 해결 등 5개 하위 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DMSES-SF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계수를 사용하였는데, 그 범위는 .73에서 .83까지이며,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Betz, Klein, & Taylor, 1996).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370명을 대상으로 한 5개 하위 요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자기 평가 요인 .76, 직업 정보 요인 .68, 목표 선택 요인 .75, 미래 계획 요인 .79, 문제 해결 요인 .70이며, 전체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CDMSES-SF의 타당도는 준거-관련 타당도에 의해 산출되었는데, Career Decision Scale(Osipow, 1987)과 5개 하위 요인 및 총점과의 상관은 -.45에서 -.66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를 통한 전체 진로-자기 효능감 점수와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은

자기 평가 요인 .86, 직업 정보 요인 .70, 목표 선택 요인 .74, 미래 계획 요인 .80, 그리고 문제 해결 요인 .80으로 나타났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들간의 단순 상관 계수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에 의하면, 진로 자기-효능감 총점과 진로 태도 총점 및 하위 5개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특히, 진로 태도 총점($r=.63$), 결정성 차원($r=.57$), 확신성 차원($r=.61$)과는 매우 높

은 수준의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 및 진로 태도 성숙도 점수와 개인적 변인-성별, 학년, 전공별-과의 관계를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 및 진로 태도 성숙도 점수와 개인적 변인과의 상관 계수는 -.05에서 .09까지로 매우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변인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별, 전공별에 의한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와 진로 태도 성숙 점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1. 진로 태도 성숙과 진로 자기-효능감 변인의 단순 상관 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N=370)

변인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	5.53	1.16											
2	5.87	1.31	.86										
3	5.11	1.43	.80	.55									
4	5.71	1.33	.84	.74	.56								
5	5.57	1.55	.90	.72	.72	.71							
6	5.40	1.32	.77	.61	.51	.53	.59						
7	3.49	.37	.63	.66	.35	.61	.57	.45					
8	3.27	.79	.57	.56	.36	.61	.57	.25	.79				
9	3.27	.63	.16	.24	-.09	.23	.11	.20	.53	.28			
10	3.29	.57	.61	.58	.42	.52	.58	.46	.70	.54	.15		
11	3.89	.49	.21	.22	.24	.08	.18	.16	.32	.01	-.17	.10	
12	3.70	.53	.24	.31	.02	.28	.14	.28	.62	.25	.41	.20	.18

1: CDMSES - SF총점, 2: CDMSES - SF자기평가, 3: CDMSES - SF직업정보, 4: CDMSES - SF목표선택, 5: CDMSES - SF계획, 6: CDMSES - SF문제해결, 7: 진로태도 총점, 8: 진로태도 결정성, 9: 진로태도 목적성, 10: 진로태도 확신성, 11: 진로태도 준비성, 12: 진로태도 독립성

표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 태도 성숙 점수 ()안은 표준편차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 별												
남 자	5.58 (1.17)	5.88 (1.32)	5.12 (1.46)	5.74 (1.33)	5.64 (1.55)	5.49 (1.33)	3.50 (.47)	3.28 (.80)	3.22 (.65)	3.32 (.58)	3.89 (.50)	3.75 (.49)
여 자	5.44 (1.13)	5.83 (1.28)	5.07 (1.36)	5.66 (1.33)	5.43 (1.55)	5.20 (1.27)	3.46 (.36)	3.25 (.79)	3.37 (.58)	3.23 (.55)	3.87 (.47)	3.59 (.60)
F	1.14	.14	.09	.31	1.49	4.00*	.81	.16	4.63*	2.17	.13	7.63**
학 년												
1	5.45 (1.20)	5.73 (1.34)	4.98 (1.49)	5.73 (1.35)	5.37 (1.62)	5.44 (1.31)	3.44 (.38)	3.14 (.79)	3.27 (.66)	3.26 (.60)	3.84 (.51)	3.69 (.53)
2	5.54 (1.17)	5.92 (1.41)	5.10 (1.39)	5.82 (1.39)	5.70 (1.54)	5.17 (1.25)	3.52 (.38)	3.37 (.81)	3.27 (.57)	3.30 (.56)	3.93 (.47)	3.72 (.57)
3	5.47 (1.14)	5.87 (1.19)	5.12 (1.38)	5.50 (1.19)	5.56 (1.51)	5.29 (1.37)	3.49 (.36)	3.27 (.74)	3.23 (.66)	3.30 (.55)	3.95 (.46)	3.68 (.48)
4	5.84 (1.03)	6.17 (1.11)	5.48 (1.34)	5.75 (1.32)	5.91 (1.40)	5.86 (1.33)	3.54 (.35)	3.44 (.79)	3.28 (.64)	3.37 (.55)	3.88 (.50)	3.70 (.54)
F	1.51	1.58	1.64	.80	1.92	3.39*	1.43	2.70**	.07	.46	1.14	.07
전 공												
인 문	5.62 (1.16)	5.92 (1.34)	5.24 (1.43)	5.77 (1.36)	5.75 (1.53)	5.41 (1.26)	3.50 (.38)	3.33 (.86)	3.27 (.80)	3.31 (.56)	3.92 (.44)	3.66 (.53)
자 연	5.45 (1.17)	5.81 (1.28)	4.99 (1.42)	5.66 (1.30)	5.40 (1.57)	5.38 (1.38)	3.47 (.37)	3.21 (.73)	3.26 (.70)	3.27 (.59)	3.86 (.54)	3.74 (.53)
F	1.96	.71	2.80	.65	4.51*	.04	.79	1.85	.05	.53	1.50	1.95

1: CDMSES - SF총점, 2: CDMSES - SF자기평가, 3: CDMSES - SF직업정보, 4: CDMSES - SF목표선택, 5: CDMSES - SF계획, 6: CDMSES - SF문제해결, 7: 진로태도 총점, 8: 진로태도 결정성, 9: 진로태도 목적성, 10: 진로태도 확신성, 11: 진로태도 준비성, 12: 진로태도 독립성

* $p < .05$ ** $p < .01$

표 2에 의하면, 진로 자기-효능감 총점과 진로 태도 성숙 총점은 성별, 학년별, 전공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문제 해결 요인에서 남학생($M=5.40$, $SD=1.32$)이 여학생

($M=5.20$, $SD=1.27$)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1,369)=4.00$, $p < .05$). 또한 학년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4학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증 결과에 의하면 2학년($M=5.17$,

SD=1.25)과 4학년(M=5.86, SD=1.3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전공별로는 문제 해결 능력 요인에서 전공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 학생 집단(M=5.75, SD=1.53)이 자연계 학생 집단(M=5.40, SD=1.5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1,369)=4.51, p<.05$).

진로 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 중, 목적성과 독립성 차원에서 남녀 차이를 보였다. 목적성 차원의 경우에는 남학생(M=3.22, SD=.65)보다 여학생(M=3.37, SD=.58)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F(1,369)=4.63, p<.05$), 독립성 차원에서는 남학생(M=3.75, SD=.49)이 여학생(M=3.59, SD=.6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F(1,369)=7.63, p<.001$).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를 가장 강력하게 예언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표 3에 진로 태도 성숙 점수를 종

속 변인으로 하고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 성별, 학년별, 그리고 전공별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진로 태도 성숙 정도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가 전체 변량의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결정성 차원은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가 전체 변량의 32%, 확신성 차원의 경우에는 38%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적성 차원과 독립성 차원의 경우에는 진로 자기-효능감 점수 이외에 성차이가 진로 태도 성숙 정도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그 설명 변량이 매우 미약한 것을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 대학생의 진로

표 3. 진로 자기-효능감과 개인적 변인이 진로 태도를 예언하는 정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R ²	예언 변인	Beta	t	p
진로태도총점 $F(1,365)=243.70, p<.000$.40	CDMSE	.63	15.61	.000
결정성 차원 $F(1,365)=172.92, p<.000$.32	CDMSE	.57	13.15	.000
목적성 차원 $F(2,364)=7.53, p<.01$.04	CDMSE	.17	2.27	.001
확신성 차원 $F(1,365)=219.16, p<.000$.38	성 CDMSE	.12 .61	2.26 14.80	.004 .000
준비성 차원 $F(1,365)=16.69, p<.001$.04	CDMSE	.21	4.09	.000
독립성 차원 $F(2,364)=15.65, p<.001$.08	CDMSE 성	.24 -.14	4.69 -2.80	.000 .005

자기-효능감 수준과 진로 태도 성숙 수준이 명확한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개인이 특정 진로 영역에 대한 결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중재 변인에 기초를 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 결정 행동은 일차적인 중재 변인인 개인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Bandura, 1989). 진로 탐색과 관련된 진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인 직업적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 태도 하위 요인의 상관 관계,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유의미한 관계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의 개인적인 확신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Taylor와 Betz(1983)의 진로 자기-효능감 이론이 Crites(1971)의 진로 태도 발달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지지해 주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특히, 진로 태도 성숙의 하위 요인 중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선택의 확고성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성 차원과 자신이 선택한 직업 세계에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 정도를 나타내는 확신성 차원에 대해 진로 자기-효능감이 매우 강력한 설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진로 자기-효능감 수준이 개인이 진로에 대해 갖는 태도, 특히 가장 정서적인 부분을 많

이 포함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강력한 설명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 자기-효능감 이론이 개인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인지적 요인보다는 정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 (Betz & Luzzo, 1996; 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과 매우 일관된 결과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계성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theory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s*, 37, 122-14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s*, 44, 1175-1184.
- Betz, N. E., & Luzzo, D. A.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3-328.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Brooks, L. (1990). Validity concerns for counsellors using the 1978 edition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Canadian Counsellor, 18*(1), 5-12.
- Cook, E. P. (1991). Annual review: Practice and research in career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90.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99-131.
- Crites, J. O. (1965).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in adolescence: I. Attitude scale of the Vocational Development Inventory. *Psychological Monographs, 79*(2).
- Crites, J. O. (1971). *The maturity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Washington, D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 Crites, J. O. (1978b).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College Testing Board/McGraw-Hill.
- Harré, R., & Lamb, R. (1983).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Luzzo, D. A. (1993). Value of 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2), 194-199.
- Osipow, S. H. (1987). *Manual for the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olberg, V. S., Good, G. E., Fischer, A. R., Brown, S. 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 Spokane, A. R., & Fretz, B. (1992). *Process and outcome changes associated with 8 sessions of career counseling: Focus on career belief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racey, T. J. G. (1997). The structure of interests and self-efficacy expectations: An expanded examination of the spherical model of intere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1), 32-43.

The Effects of Career Self -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i-Hak Lee Hak-Joo Lee

Yonsei University Uls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level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career attitude maturity. Toward this end, 370 college students were administered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cy Scale.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of career self-efficacy and the 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r=.63$). The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decisiveness($r=.57$) and confidence($r=.63$), had a very high correlation. The scores of career self-efficacy explained 40% of the subfactors of career attitude scores. This results suggests that personal confid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one's career.